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8/31 ~ 2026/09/06]

2026.09.07

[로봇] 오리 날다

- 허깅페이스의 마이크로덕 인기에 로보티즈 액츄에이터 수혜 기대감 확대
- LG전자의 자신감. 글로벌 빅테크항 액츄에이터 대형 수주 임박
-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돌입, 그리고 오픈 시의 휴머노이드 개발 공식화

[방산] MSPO 프리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인 자주포에 크로아티아 천무까지 수주 폭발
- 2027년도 국방예산 73.3조원 요청. KF-21 양산 가속화
- 미국, 궤도형 자주포 사업 RFI 발행. 그리고, 방공, 레이저 무기 등 연이어 계약

[조선] 미국의 함정 도입 검토

- 한화오션, VLGC와 컨테이너선 대규모 수주로 상선 수주 흐름 회복
- 미국 군함 해외 건조에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가 후보군으로 부상
- 이번에는 레이크캐리어가 중국에 PCTC 발주. 한국 단골들 중국으로 선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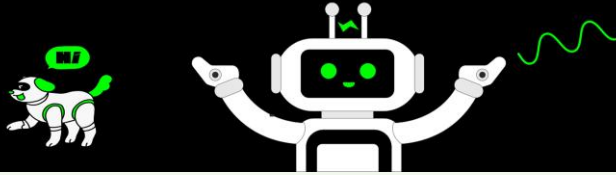
[항공] 투자 부담 완화

- 항공안전투자 올해 17.4조로 급증, 통합에 따른 중복 투자 조정으로 내년 12.8조로 감소
- 대한항공, 정부군 연구기관과 '차세대 무인기 플랫폼' 발전 모색
- 9월 중국 노선 쟁탈전 열렸다, LCC '알짜 운수권' 확보 경쟁

[해운] 전 선행 강세

- 해의 유조선 선사 분기 최고 실적, 호르무즈 봉쇄로 장거리 운송 확대, 재고 리스토킹도 호재
- 글로벌 주요 항만 혼잡, 전세계 선박 평균 대기시간 7년 만에 2배 증가
- BDI 2023년 12월 이후 2년만에 최고치 경신, Capesize 운임 급등 영향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오리 날다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IPO가 임박. 공모가 기준 시총은 13조원 수준. 기관 청약 경쟁률 2,618배로 높은 시장 관심. 상장 이후 국내 로봇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9)

[오리 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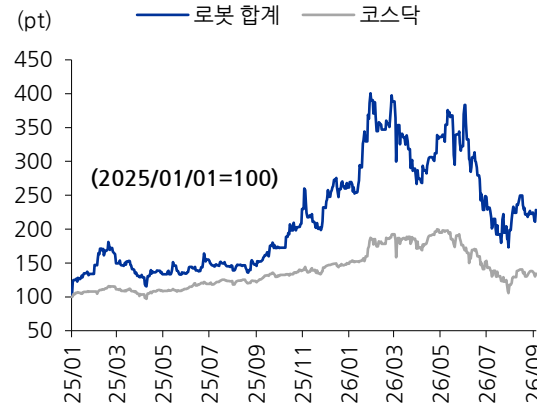
- 로보티즈의 다이내믹셀이 대당 15개 탑재되는 마이크로덕이 출시 직후 사전주문 1만대를 돌파. 허깅페이스 CEO는 5만대 판매를 성공 기준으로 제시. 399달러의 저렴한 가격과 사용자가 강화학습으로 새로운 동작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발용 수요 폭발.
-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합의에도 주목. 엔비디아는 기존에 보유 하던 연산·시뮬레이션 인프라에 모델·데이터·개발자 커뮤니티를 연결 하며 피지컬 AI 생태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 마이크로덕에 부품을 공급하는 로보티즈도 해당 생태계와의 접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최근 로보티즈가 공개한 AI 사피엔스의 Isaac Lab 기반 학습 및 Jetson 기반 구동 사례는 엔비디아 플랫폼과의 실제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 유니트리가 선점한 연구개발 시장에서도 미·중 규제와 공급망 다변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로봇 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관심.

Key Chart: 마이크로덕, 로보티즈 매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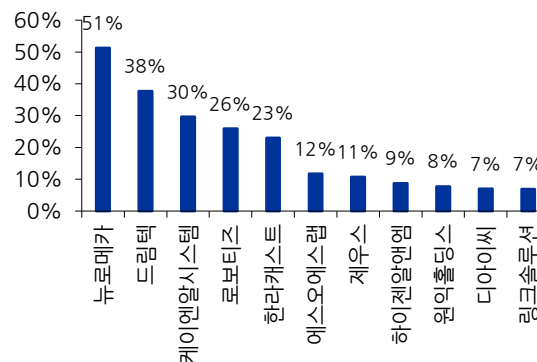
완제품 대수	모터 소요	ASP 1.5 만원	ASP 2 만원	ASP 2.5 만원
1 만 대	15 만 개	22.5 억원	30 억원	37.5 억원
2 만 대	30 만 개	45 억원	60 억원	75 억원
5 만 대	75 만 개	112.5 억원	150 억원	187.5 억원
10 만 대	150 만 개	225 억원	300 억원	375 억원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8/31~09/06)

[휴머노이드]

- 과기부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로드맵을 공개
- 로보티즈, K-휴머노이드 풀뿌리 키운다
- CJ대한통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 NC AI, LG전자와 자율형 휴머노이드 개발

[부품/SW/기타]

- 1만대 예약 물린 'AI 로봇오리' 韓 모터가 움직인다
- 삼성, 美 휴머노이드 전초기지 키운다
- 현대차, 아틀라스 이어 자체 양팔로봇 키운다
- 현대차 "새만금에 로봇 부품사 유치"
- LG전자, 글로벌 빅테크에 로봇 '관절' "수주 임박"
- 삼성SDS, 삼성 공장에 '피지컬 AI' 심는다
- 원익로보틱스, 5지 핸드 'Allegro Hand V6 F' 출시
- 제이에스링크, 북미 로봇 부품사 첫 양산 PO 수주
- 하이젠알앤엠, 81억 휴머노이드 국책과제 주관 선정
- 티로보틱스, 美 포드 ESS 자동화 시스템 추가 수주
- 케이엔알시스템 "세계 첫 중수로 해체로봇 개발"
- 클로봇, DLS 인수 완료. 이달부터 자회사 편입
- TPC로보틱스,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등 7종 출시
- 베어로보틱스, 최대 4,000억원 프리IPO 추진

[글로벌]

- NVIDIA가 Hugging Face를 인수
-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 돌입
- 오픈AI, 챗GPT 넘어 휴머노이드 개발 공식화
- 中 감속기 '리더드라이브', 홍콩 IPO 절차 들어간다



Weekly Keyword

MSPO 프리뷰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이번 주, 폴란드에서 MSPO가 개최될 예정. 폴란드 후속 계약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협의 내용들의 업데이트와 타 유럽 국가로의 수출 및 협력 확대 흐름 확인을 기대.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87)

[MSPO 프리뷰]

- 9월 8~11일 폴란드에서 MSPO가 개최됨. 한국 방산업체들의 후속 계약과 현지화 협력 진전이 주요 관전 포인트.
- (1) 현대로템은 K2 현지화 진척에 주목. 기술이전 범위와 비용 부담 등을 조율 중인 가운데, PGZ의 관련 설명을 통해 생산 준비와 현지 공급망 구축 일정이 구체화될지 관심.
-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3차 실행계약 및 현지생산 협의의 진전 여부에 주목. 최근 폴란드 납품용 MCS(모듈형 장약) 검증도 완료된 만큼, 공급 확대와 현지 생산 관련 추가 협력 가능성에 관심.
- (3) LIG D&A-라인메탈, 한화에어로스페이스-탈레스 등 6월 유로사토리에서 발표된 협력의 후속 조치도 확인 필요. 협력 분야와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지 주목.
- (4) 전시회 기간 크로아티아 천무 수출 계약 체결 여부도 주요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과 연계한 방산 협력 뉴스에도 주목.

Key Chart: 폴란드 MSPO 한화 부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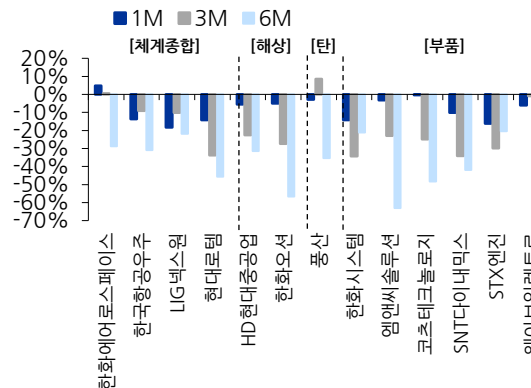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8/31~09/06)

[수주/계약]

- 한화, 스페인 방산업체와 K9 자주포 계약
- 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 천무 18문 첫 수출
- 캐나다-핀란드-루마니아, 한화에 다목적무인차량 문의
- 모로코, 현대로템 'K2 흑표' 400대 도입 검토
- KAI, 이집트와 'FA-50 100대 수출' 막바지

[기업별 이슈]

- 한화, KAI 지분 취득 '공정위 승인'
- 한화, 美 육군 획득 책임자에 지상방산 역량 입증
- 한화, K9-천무 글로벌 운용국 협력 강화
- 한화 K9, '드론 잡는 자주포'로 진화
- 한화에어로 K-MCS, 폴란드군 도입 '청신호'
- LIG D&A, 5,000억 우선주 발행 이달 납입
- 현대로템-폴란드 K2 엔진 정비 갈등 극적 봉합
- 한화시스템, 유럽 직수출·간접수출 동시 추진
- 비츠로셀, 열전지로 미국 공략 "방산 2개사 논의"

[기타]

- 내년도 국방예산 73조 2,777억 원
- 트럼프 "한국, 당장 우크라이나 미사일 팔아라"

[글로벌]

- 미 육군 궤도형 곡사포 후보군을 모색
- 미국, PAC-3 및 사드 생산 증대 위한 계약 체결
- 미 육군, 4.7억 달러 레이저 생산 계약 체결
- 푸틴 "美우크라이나 접촉 계속. 분쟁 해결 가능성"
- 이스라엘, 그리스에 4.8조원 방공망 수출



Weekly Keyword

미국의 함정 도입 검토

미국의 함정 해외 건조 허용 관련,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가 경쟁하는 구도로 확인. 그동안의 미국 관계자들의 행보를 보아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7)

[미국의 함정 도입 검토]

- 미국의 해외 함정 도입 검토가 구체화되고 있음. 호위함 후보로 한국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수출형, 튀르키예 이스탄불급이 거론되며, 11월 12일까지 관련 평가가 진행될 예정.
- 미국 측은 국내 조선사에 설계·건조 역량과 생산능력 관련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의회 관계자와 해군 조선 담당 고문 등이 국내 조선소를 연이어 방문. 한국의 건조 역량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
- 초기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는 미국 조선소 신설 또는 소유권·과반 지분 확보, 기술이전과 후속 미국 생산을 조건으로 추진. 수익성의 관점에서 국내 초기 건조 이익과 미국 투자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

Key Chart: 미국 함정 해외 건조 허용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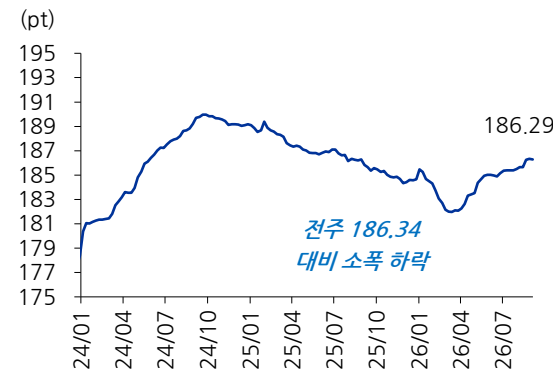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대상 함종	수상전투함, CONSOL 보급 유조선, RO-RO 수송선
해외 건조 범위	초기 최대 2 척 해외 건조, 이후 미국 내 건조
미국 생산거점	해외 건조와 병행해 미국 조선소 신설 또는 기존 조선소 소유권·과반 지분 확보
인력·기술	미국인 고용·교육 및 독자 조선 기술·기법의 미국 조선소 이전
공급망	미국 내 건조·정비를 위한 미국 공급망 확보
계약 절차	개별 계약의 국가안보상 예외 판단 및 의회 통보 후 30 일 경과 필요

자료: 백악관,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8/31~09/06)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161.0m 컨테이너선 2척 수주
- 한화오션 \$115.7m VLGC 3척 수주
- 양밍, 한화에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 발주
- Zodiac, 한국에 최대 4척 LNGC 신조 발주 추진
- HD현대마린엔진 \$63.3m 中 선박엔진 수주
- HD현대마린엔진 \$16.5m 中 선박엔진 수주

[특수선]

- 美 해군성 조선 실세 비공개 방한
- 韓 조선, 美 해군 MRO 2년간 2천억 수주 쾌거
- 아르헨티나 잠수함 수주전 HD현대중공업 급부상
- HD현대·한화오션, 2조원 필리핀 잠수함 격돌
- 태국, 최대 4조 규모 호위함 도입 이르면 이번 주 윤곽

[기타]

- 한화, 美 필리조선소 확장 본격 착수
- HD현대중공업, 2일부터 순환 파업
-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 극지선박 '공동전선'
- HD한조양, 中 룽팅과 '원가 경쟁력' 고민 해결

[글로벌]

- 미국 해외 건조 전투함 한국 일본 튀르키예 저울질
- VLCC 운임 폭등에 중고선도 품귀
- 스웨덴, 프랑스 나발에 호위함 4척을 발주
- 오스탈USA, 美 군함 사업서 적자전환
- 韓 단골 레이카캐리어스가 中에 PCTC 10척 맡겼다
- 日, 자국 조선사에 1조8천억원 보조금



Weekly Keyword

투자 부담 완화

국내 항공안전 투자는 신규기재 도입 확대와 제도 개편 영향으로 '26년 17.4조원으로 증가. '27년은 투자 규모가 12.8조원으로 감소하며 항공사들의 투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7)

[투자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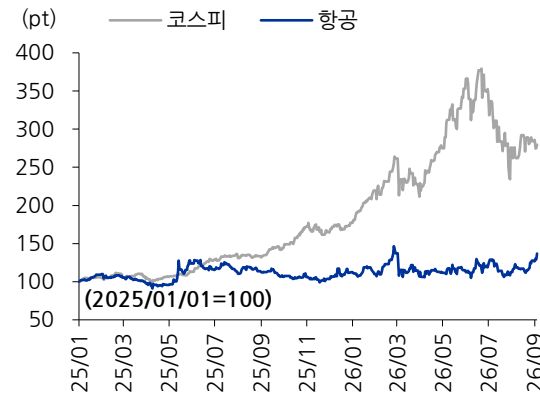
- 9/2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항공안전 투자는 '25년 13.3조원에서 '26년 17.4조원(+31%yoy)으로 증가. 기존 경년 항공기 교체 중심으로 인정되던 항공기 관련 투자가 신규 도입 전반으로 확대되며 투자 확대를 견인. 신규기재 도입은 '25년 43대에서 '26년 60대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약 7.1조원으로 전체 안전투자의 40%를 차지.
- '27년 항공안전 투자는 12.8조원(-26%yoy), 신규기재 도입은 28대(-53%yoy)로 감소할 계획. 이는 안전 관련 지출 축소가 아닌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과 인천공항공사 대규모 시설 사업 완료 영향으로 판단. 이에 따라 통합이 본격화되는 '27년부터 항공사들의 투자 부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Key Chart: 신규 항공기 도입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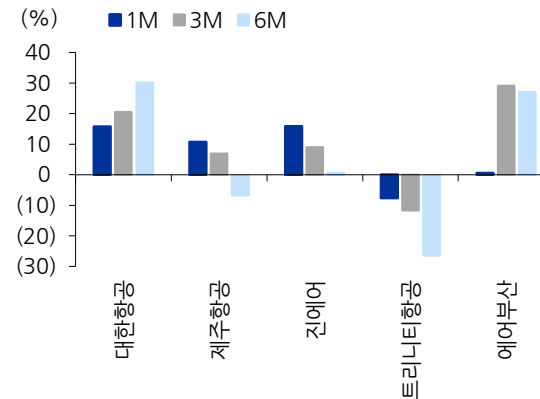
(단위: 억원, 대)	2025년		2026년		2027년	
	도입 규모	도입 대수	도입 규모	도입 대수	도입 규모	도입 대수
국제운송사업자	38,798	43	70,663	60	48,427	28
FSC	24,118	15	38,379	24	21,744	-
대한항공	23,721	14	38,379	24	21,744	-
아시아나항공	397	1	-	-	-	-
LCC	14,680	28	32,284	36	26,683	28
제주항공	4,841	6	5,482	7	6,151	8
에어부산	35	1	-	-	-	-
진에어	-	-	5,436	8	7,639	-
트리니티항공	4,088	7	17,032	16	8,801	8
기타	5,716	14	4,334	5	4,092	12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8/31~09/06)

[여객/화물]

- 일본인 해외여행 '한국 쏘림', 1~7월 228만명 방한
- 9월 중국 노선 쟁탈전, LCC '알짜 운수권' 확보 경쟁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정부·군·연구기관과 '무인기 기술교류회' 개최
- 대한항공, 태국 TAI와 손잡고 동남아 항공 MRO 시장 공략
- 대한항공·일본항공 전략적 파트너십, 한진칼 지분 인수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협력사 고용 불안 확산
- 54조 보잉기 사는 대한항공, 제주항공과 美수은 노크
- 통합 출범 D-105, 아시아나 비행기 대한항공 옷 입었다
- 한진그룹 정석기업 지분 매각 추진, '남매 화합' 이루나
- 제주항공 중국 노선 탑승객 518만명 돌파, LCC 3명 중 1명
- 티웨이항공 9월 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운항
- 티웨이항공, 국제선 운임 최대 15% 할인 행사 진행

[기타]

- 내년 항공안전 12.8조 투자, 올해보다 26.4% 줄어든다
- 91조 비즈니스 항공 뜬다, 인천공항공사 동북아 허브 승부수
- 페덱스, 인천 게이트웨이 '의약품 항공운송' 국제 인증 획득

[글로벌]

- 국제 항공 물류망 늘리는 중, 올해 115개 화물노선 신설
- 中 UAM 인증업체 '이항', 시범운행만 2년째하는 까닭은



Weekly Keyword

전 선형 강세

컨테이너·벌크·탱커 운임이 동반 상승하며 강한 해운 시장 지속. 사상 최고 수준의 탱커 운임이 해외 유조선 선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27년 탱커 스팟 노출이 확대될 팬오션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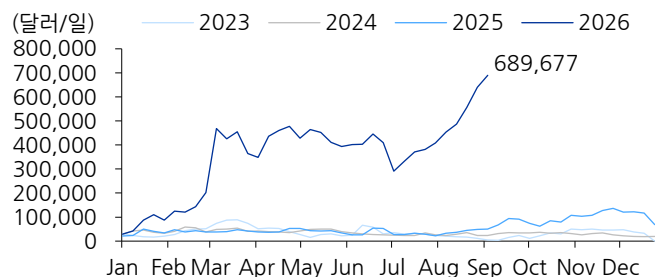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0)

[전 선형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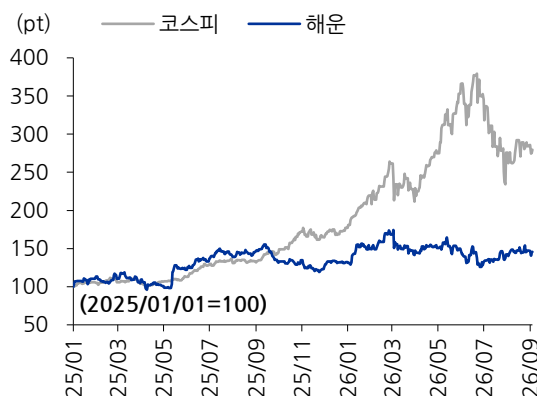
- 9/4 주간 기준 SCFI는 3,590pt(+2.3%wow)로 6주 연속 상승. 미주 운임이 상승을 견인했으며, CCFI도 1,837pt로 높은 수준을 유지. 벌크 역시 BDI는 3,325pt(+9.7%wow)로 상승했으며 Capesize 1TC는 4.3만달러/일을 상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 탱커도 TD3C-TCE가 약 70만달러/일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컨테이너, 벌크, 탱커 전 선형에서 강한 시황이 이어지는 모습.
- 현재 시황 강세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뿐 아니라 수요 자체가 강함을 의미.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탱커 운임에 주목. Frontline 2Q26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6.6억달러를 기록하며 운임 상승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 장거리 운송 증가와 재고 리스토킹 수요까지 감안하면, 탱커 시황 강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027년부터 VLCC 2척이 스팟 시황에 신규 노출되며 탱커 업황 상승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가 확대될 팬오션에 주목.

Key Chart: BDTI TD3C-TCE(MEG-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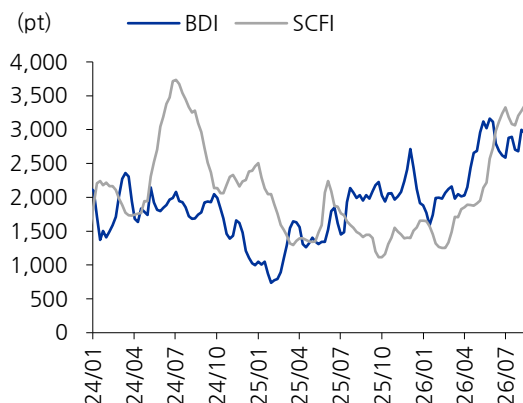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

해운 주요 뉴스(08/31~09/06)

[벌크선]

- 건화물선 운임 '깡충', 대형선 강세·중소형선 제한
- 벌크선 운임 주요 지수 2년만에 최고치 경신
- NYK, 아베니어 LNG 지분 50% 인수절차 모두 완료
- MOL, 200척 이상 선박관리 단일 법인으로 효율화

[탱커/가스선]

- 호르무즈 봉쇄로 재고보충·장거리운송 확대, 장기 시황 견조
- Frontline 4~6월기 순이익 8.5배 증가, 분기 최대 이익

[컨테이너선]

- 인도 문드라항 빈 컨테이너 야적장 운영업체 파업
- 터키 주요 두 해운사, 모든 러시아 항만 운항 중단
- Cosco 1H26 순이익 24% 감소, 2Q26 29% 이익 증가
- 6월 설립된 신생 中 선사 샤먼신렌성해운, 소형 컨선 발주

[기타]

-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피격, 韓 장금상선 운항선도 공격
- 美 밴스, "상선 공격 중단없인 이란과 대화 안해"
- 파나마 운하당국, 선박 예약시스템 변경사항 발표
- 러시아,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1,160억달러 투자 필요
- DNV, 2050년 해운 에너지 소비 최대 25% 절감
- 해진공, C대한통운과 공동투자 美 물류센터 운영
- 대한해운, 현대글로벌비스와 730억 규모 車 운반선 대선계약
- 현대글로벌비스 슬로바키아 노조, 파업투표 94% 찬성
- 현대글로벌비스 협력사 노조 잠정합의, 현대차 생산라인 '숨통'